안녕하세요
위클리에요

[Weekly: 2026/04/20~2026/04/26]

2026.04.27

[로봇]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 레인보우로보틱스 RB-Y2 공개. 로보티즈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K-1 공개
- 피지컬 인텔리전스 π0.7로 업그레이드. 구글 딥마인드도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1.6 공개
-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작년과 비교해 월등한 성장. 48분에 주파해 세계신기록 돌파

[방산] 주문해도 오지 않을 미국 무기

- 현대로템, 현대위아 방산 사업부 인수 추진. KAI와 풍산에 이어 호황 속 업계 재편 활발
- 일본, 살상력 있는 무기 수출 가능하도록 승인. 수출 컨트롤 타워 구축도 추진
- 독일 IFV를 사겠다는 루마니아. IFV를 포기하고 드론을 사겠다는 에스토니아

[조선] AI와 엔진

- LPG운반선 호황. HD현대삼호 2척, HD현대중공업 4척 수주
- VLCC는 아쉽게 중국에 집중 발주. 어드밴티지 탱커스, JP모건, 머큐리아 등
- 일본 호주 호위함 11척 건조 계약 체결. 한국은 캐나다 잠수함 올인. 한화오션 어빙조선소와 협의

[항공] 해소되지 않는 항공유 부족

- 이번 주도 LCC 비운항 소식 다수. 에어프레미아 미국, 에어로케이 동남아 노선 등
- IEA에서 유럽 항공유 6주뒤 소진될 것이라 언급. 5월 인천-뉴욕 유류할증료 110만원으로
- 유나티이트항공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메리칸항공에 합병을 오퍼

[해운] 벌크 구조적 강세

- 美 국방장관, 대이란 해상봉쇄 전세계로 확대. 유럽, 아시아에 책임 분담 요구
- 美 외국적선 연안수송 허용 8월까지 연장. 트럼프 존스법 유예 90일 연장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3~4월 미국산 원유·LNG 아시아 수출량 +30%yoy 증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Weekly Keyword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이 개최. 전체적인 성과는 전년비 크게 개선된 모습. 주행 속도도 빨라지고 하드웨어 안전성이 개선됨. 이제는 하드웨어를 넘어 AI 고도화를 추진.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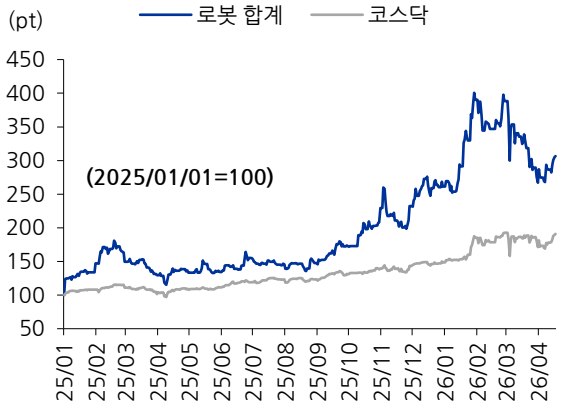
[중국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

- 올해도 중국에서 휴머노이드 하프 마라톤이 개최됨. 중국 스마트폰 업체 아너(Honor)가 만든 휴머노이드 'Lightning'이 50분 26초로 우승. 인간 세계기록(57분 20초)보다도 더 빠른 기록. 작년 첫 대회에서는 우승 기록이 2시간 40분대(톈궁). 작년은 대다수의 로봇이 완주 자체도 어려웠는데(21대 중 6대), 올해는 여러 로봇이 1시간 이내 기록을 내며 성능이 크게 개선된 모습을 확인함. 전체 로봇 중 약 40%는 원격 조작이 아닌 자율 주행으로 참여. 1년만에 중국 로봇의 하드웨어 능력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 다음은 범용 AI 차례. 최근 중국 휴머노이드 기업들(유니트리, 애지봇 등)은 휴머노이드 데이터를 오픈 소스로 공개하며 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방형 생태계 구축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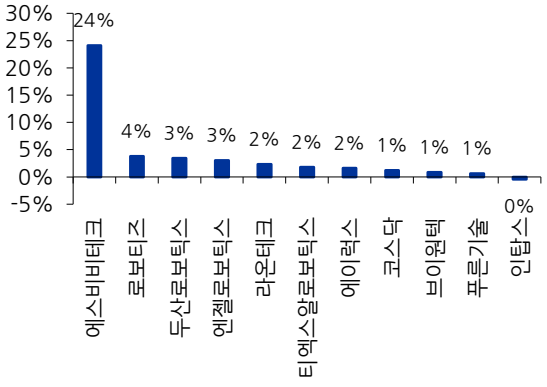
Key Chart: 하프 마라톤 현장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iwise

로봇 주요 뉴스(04/13~04/19)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로봇개 투입' 검토

[휴머노이드]

- 로보티즈, 보급형 휴머노이드 K-1 공개
- 정의선 회장 "2030년까지 연간 3만대 아틀라스 생산"
- 기계연, "내년 한국형 휴머노이드 첫선"

[부품/SW/기타]

- 삼성로봇단장 "현장부터 바꿔" 레인보우 RB-Y2 공개
- 에스피지, '모덱스 2026'에서액추에이터 'SDD' 첫 선
- 에이딘로보틱스, 레인보우 'RB-Y1' 1호 대리점 계약
- 1800억 RCPS' HD현대로보, 재무 리스크 '부메랑'

[Global]

- 세계신기록보다 빨라. 中 로봇 하프마라톤 48분에 주파
- 中 휴머노이드 로봇, 1초에 10미터 주파
- 中 애지봇, 월드 시뮬레이터 '지니 인비저너 2.0' 발표
- 中 타스로봇 6,700억 조달, 단일 라운드 역대 최대
- 中 애지봇 휴머노이드 로봇, 태블릿PC 생산라인 투입
- 피지컬 인텔리전스, 새 로봇 두뇌 'π0.7' 공개
- 스킬드 AI, 지브라 로봇 사업부 인수
- 구글 딥마인드, 제미나이 로보틱스 ER 1.6 공개
- 테슬라, 상해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생산 검토
- 베어로보틱스, 북미 물류 전시회서 AMR 신규 4종 공개
- 휴머노이드 "집안 일 성공률 12%"
- 도요타, 신형 농구 로봇 공개. 로봇 제어 고도화
- 日 도요타자동차, AI 농구 로봇 'CUE7' 공개

Weekly Keyword

주문해도 오지 않을 미국 무기

중동 사태에 미국 무기 재고 소진이 심각. 대규모 조달을 추진 중이나, 이로 인해 우방국들의 미국 무기 체계 인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미사일 체계의 쇼티지는 계속됨.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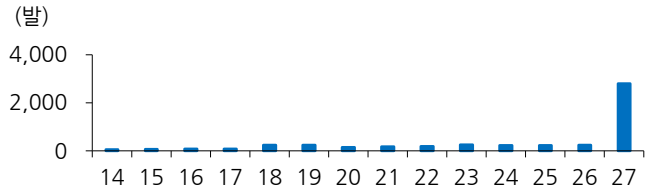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70)

[주문해도 오지 않을 미국 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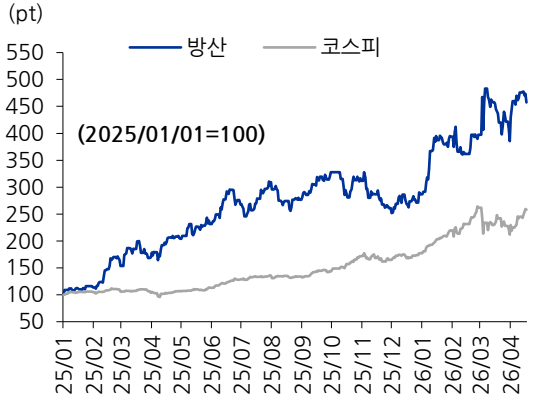
- 중동 사태 속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급격히 소진됨에 따라 미국의 자국 보충 수요가 크게 증가 중. 2027FY 국방 예산 요청에서 PAC-3 MSE 3,203발, THAAD 857발, 토마호크 785발, PrSM 1,134, SM-3 Block Ⅱ A 136발 등 미사일의 대규모 조달을 요구. 미국 방산 업체들이 기본 4배 가량의 생산 CAPA 확대를 추진 중. 목표 달성 시기는 2030년 이후로 미국의 자국 수요만으로도 공급은 매우 타이트할 전망.
- 일부 외신 보도에서 미국이 FMS로 판매한 무기 체계에 대한 지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발트국가 및 북유럽 국가 영향). 실제로 미국의 FMS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표준조항을 보면, 조항 1.4에 *"미국 정부는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방위 물자의 인도 또는 방위 서비스 제공 이전에 언제든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명시. 공격 및 방어용 미사일 체계의 쇼티지가 장기화 될 가능성에 주목.

Key Chart: 미 육군 PAC-3 MSE 예산 요청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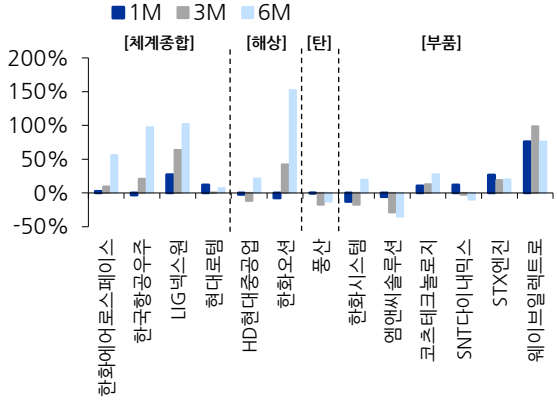


자료: DoW,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방산 주요 뉴스(04/13~04/19)

[수주/계약]

- K-방산, 작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세계 4위 올라
- 크로아티아 중거리 방공시스템 도입 추진
-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라인메탈 IFV 계약 사실상 확정"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NATO 대사단 초청. 방산 협력 비전 공유
- KF-21 양산 1호기,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 성공
- WSJ "사우디, LIG넥스원에 천궁-Ⅱ 조기 인도 문의"
- 현대로템, 9월 현대위아 방산 인수. "현물 출자 유력"

[기타]

- 李 "폴란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천룡' 시제 2기, 엔진 결함으로 추락
- 軍, 교육용 드론 1만1천여대 입찰공고
- 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방문. 조선·방산 논의

[글로벌]

-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열흘 휴전 합의"
- 미 육군 드론잡는 '코요테' 요격기 장기 확보 추진
- 무기소진 속 美 국방부, 軍 제조업체와 생산 논의
- 美 국방부, 한화 탄약공장 인근에 드론 생산시설 추진
- 미 육군, 의원들에게 팔라딘 생산 중단 지지 요청
- EU·나토, 재무장 속도전 합의와 주도권 경쟁
- 에스토니아, 5.9억달러 IFV 구매 중단하고 드론 도입
- 日 자민, 살상무기 수출 전면 해금 정부안 승인
- 일본, 무기수출 추진 위한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틀 신설
- 호주, 국방비 2033년까지 GDP 대비 3%로 늘린다

Weekly Keyword

AI와 엔진

바르질라의 미국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 계약이 보도되면서 국내 엔진 기자재 업체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커지는 중. HD현대중공업, STX 엔진 등 중속 엔진 제조 업체 대한 관심 확대 전망.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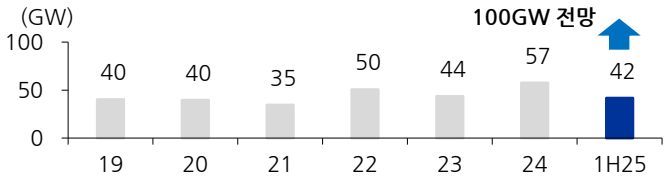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0)

[AI와 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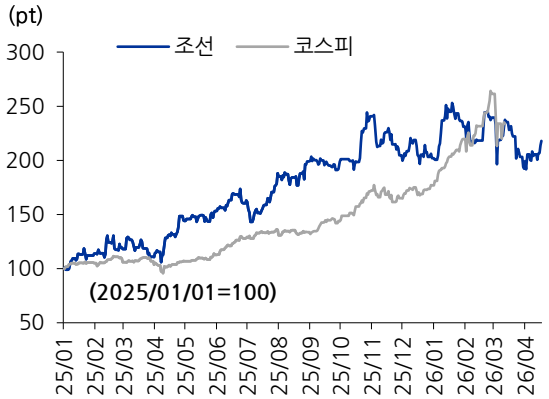
- 조선 엔진 밸류체인에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 확산. 4월 16일, 핀란드 해양/에너지 기업 바르질라(Wärtsilä)가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412MW 규모 엔진 공급(34SG 엔진 40기)이 보도됨. 참고로, 동사의 미국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은 총 1.6GW에 달함.
- 데이터센터향 엔진 공급 기대감에 국내 조선 엔진 업체들의 주가도 동반 상승 중. 4행정 중속 엔진이 육상 발전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 데이터센터의 주 전력원인 대형 가스터빈의 공급 슬롯이 타이트해(미쓰비시중공업: 현재 29~30년 슬롯 수주 중), 중소형 가스터빈 및 중속 엔진의 클러스터링을 통한 전력 공급 방법이 주목 받고 있음. 특히, 엔진은 리드 타임과 모듈 기반 확장성에 강점을 지님.
- 국내 수혜 업체로는 HD현대중공업과 STX엔진, 한화엔진이 있음. HD현대중공업은 자체 개발한 힘쎈 엔진 브랜드가 있고, 육상 발전 레코드도 보유. STX 엔진은 독일 MAN사(Everllence) 중속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 중이고, 한화엔진도 MAN사 라이센스 기반 중속 엔진 사업을 재개 중. 참고로 HD현대마린엔진은 대형 저속 2행정 엔진 업체.

Key Chart: 글로벌 가스터빈 시장 규모(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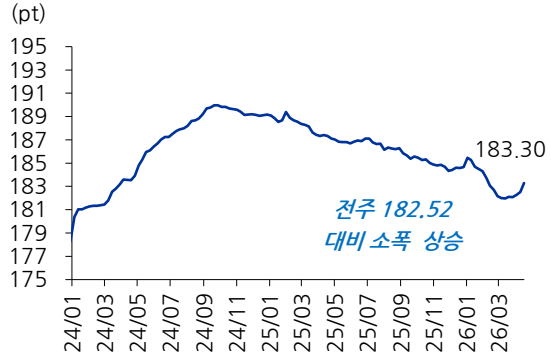


자료: MHI,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4/13~04/19)

[상선/해양]

- HD현대중공업 $134.5M PCTC 2척 수주
- HD현대삼호 $117.0M LPGC 2척 수주
- HD현대중공업 $114.5M VLGC 4척 수주
- 대한조선 $89.2M 수에즈막스급 COT 1척 수주
- 튀르키예 Botas, LNGC 2척 韓 조선에 선별 발주

[특수선]

- 한화오션, 加 노바스코샤州어빙조선소와 협력 확대
- 한화오션, 온타리오 주정부와 '산업의 날' 공동 개최
- 한화오션, 加 알고마 스틸에 3.5억달러 지원 약속
- 폴란드 오르카 "스웨덴 협상 불만족 시 다른 제안 검토"
- 태국 해군, 8천억 호위함 1척 다음주 입찰 마감
- 나토 대사단, HD현대 GRC 방문. 조선·방산 기술력 점검
- 스웨덴 항소 법원도 기각. HD현대 쇄빙선 수주 기대↑
- 美조선소 GD NASSCO 경영진 삼성중공업 방문
- IAEA 사무총장 "핵잠, 핵확산 아니라는 보장 필요"
- 美 함정 MRO HD현대重·한화오션 올해 2건씩 수주

[기타]

- 한국카본, 296억 규모 출자. 美 생산시설 확보

[글로벌]

- JP모건, 5억 달러 규모 VLCC 4척 다롄 조선과 계약
- 어드밴티지 탱커스, VLCC 다롄 조선에 발주
- 머큐리아, 6.5억달러 VLCC 및 LR2 다롄 조선에 발주
- TKMS와 나반티아, 스페인 내 생산 시설 설립 검토
- 日 모가미급 호위함 11척, 호주와 건조 계약 체결

Weekly Keyword

해소되지 않는 항공유 부족

중동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항공유 재고가 6주분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나오는 중. 한국 항공사들은 5월부터 유류할증료 최고 할증 구간을 적용할 예정.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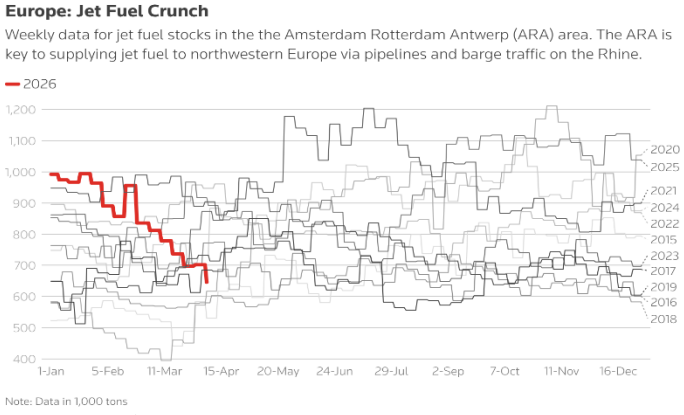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70)

[해소되지 않는 항공유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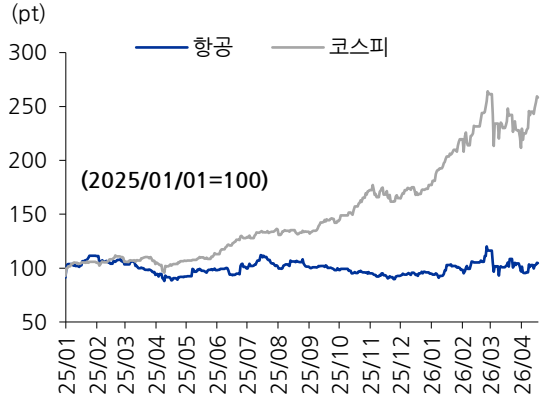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가운데, 항공 업계가 항공유 부족에 직면. 유럽에서는 항공유 재고가 6주분 밖에 남지 않았는 경고가 나오는 중. 항공사들은 통산 6주 가량의 재고를 비축하고 있는데, 전쟁 장기화로 비축된 연료마저 고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 5월에는 국내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 최고 할증 구간인 33단계에 돌입할 예정. 비용 부담도 리스크이지만, 운임 부담 확대로 인한 항공 여객 수요 감소 주시 필요.

Key Chart: 암스테르담 기준 항공유 재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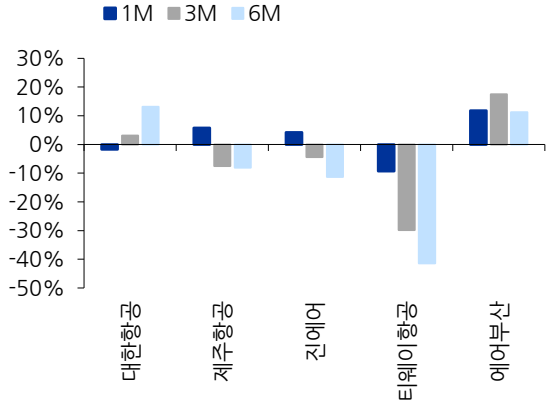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iwise

항공 주요 뉴스(04/13~04/19)

[여객/화물]

- 에어프레미아, 6월 美 노선 12편 비운항
- 에어로케이, 무더기 비운항. 청주발 다낭·나트랑 감편
- 중동 전쟁에 LCC 노선 4곳 중 1곳 사라졌다
- 뉴욕 왕복 유류할증료 내달부터 60만원 →110만원
- 대구-구마모토 직항노선 개설 논의 시작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27년 한일 여객 1,500만명 예상. 노선확충 고려"
- 대한항공, 2037년 보유기체 270대로 대폭 확대
- 대한항공, 엔진 정비 '5조' 시대 연다. "30년 세계 10위"
- 대한항공, 'ETC·운항훈련센터'로 안전 중심 통합 준비
- 아시아나항공 스타얼라이언스 로고 없앤다
- 중동 전쟁 영향, 티웨이항공 국적항공사 첫 무급휴직
- 파라타항공, 3월 국제선 탑승률 93.7%

[기타]

- 국토부, 국적항공사와 비공개 간담회. 유류할증료 논의

[글로벌]

- IEA "유럽 항공유 6주 뒤 소진" 항공대란 현실화하나
-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에 합병 제안
- AF-KLM, 포르투갈 국영항공사 'TAP' 인수전 참전
- 英 항공사 버진애틀랜틱 '인천 ~런던 노선' 신규 취항
- 회생 중 고유가. "스피릿항공, 이르면 금주 청산 가능성"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벌크 구조적 강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벌크 시황 강세 지속 중. 단순 경기 순환적 반등이 아닌 수요 회복에 따른 구조적 개선으로 판단. 향후 양호한 수준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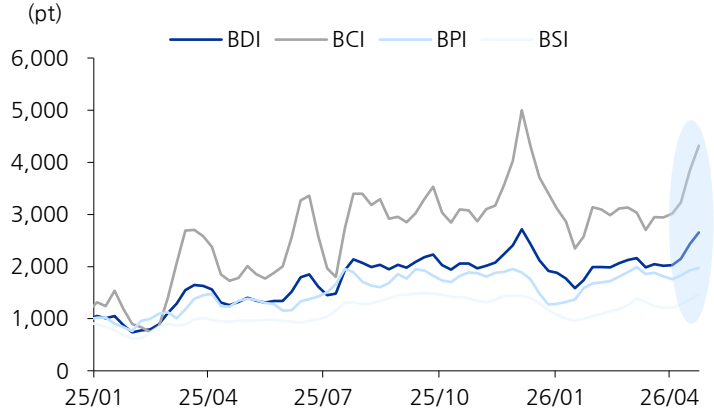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 beomsu@eugenefn.com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4)

[벌크 구조적 강세]

-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싸고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며 해협 내 혼란 확대. 그럼에도 벌크 시황은 Capesize를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 지속. 4/24 주간 기준 BDI는 2,655pt, BCI는 4,318pt로 202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 이외 벌크 지수(BPI, BSI) 또한 동시 상승 중.
- 철광석 교역은 호주, 브라질의 수출 강세와 중국의 견조한 수입 수요를 바탕으로 강세가 이어질 전망. 반면 석탄 교역은 인도네시아 수출 감소와 중국, 인도 수입 둔화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 예상. 벌크선 시황은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변동성과는 별개로, 철광석 중심의 구조적 수급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수준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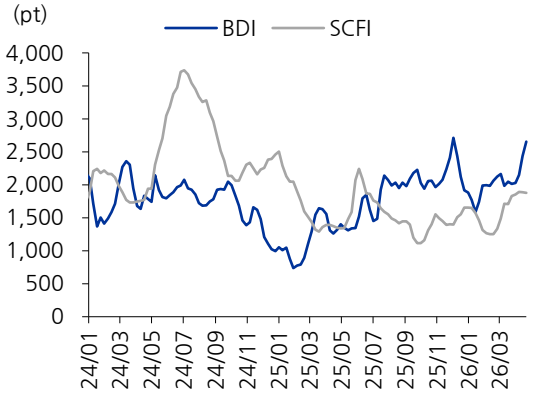
Key Chart: 벌크 운임 지수 추이



자료: Clarksons,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i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4/20~04/26)

[벌크선]

- 호르무즈 해협 혼란에도 건화물선 시장 강세 지속
- 핸디사이즈 벌크선, 대서양 선박 부족으로 시황 반등
- MOL, 운항중인 석탄 운반선에 윈드챌린저 장착

[탱커/가스선]

- 3~4월 미국산 원유·LNG 아시아 수출량 +30%yoy 증가
- 캐나다 선라이즈 확장 프로젝트 승인, LNG 수출망 확대
- 팬오션 5만톤급 MR탱커, 페트로나스에 2년간 장기용선
- 장금상선 노후 LNG 운반선 폐선 결정, 선대 효율화 박차

[컨테이너선]

-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전략적 재배치 결정
- CMA CGM, 컨테이너선 1척 인도국적 추가 등록
- 광양항, CMA GGM 신규 원양 항로 유치

[기타]

- 트럼프 휴전 사실상 무기한 연장, 이란 "인정 못 한다"
- 美, 이란 원유 관련 中 정유·해운사 41개 제재
- 美 국방장관, 대이란 해상 봉쇄 전 세계로 확대 선언
- 美 존스법 유예 90일 추가 연장, 외국적선 8월까지 운송
- 이란 혁명수비대, 해협 통과 선박 3척 공격 및 2척 나포
- 이란 호르무즈 통항료 법제화 본격화, 우호국은 일부 면제
- 정부, 해상수도권 조성 및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논의
- 북극항로 참여 선사 공모 27일 시작, 9월 운항 목표
- 글로벌 선박 노후화로 해상 선체 보험 청구액 급증
- 현대글로비스, 중동 리스크 속 1분기 해운 부문 선방
- 日 NSU, Rio Tinto와 메탄올 DF 선박 장기운송계약 체결